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에 관한 연구

김동찬 * · 김광래 * · 안봉원 * · 서주환 * · 김신원 **

*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경희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the Creation of Parks in North Korea

Kim, Dong-Chan * · Kim, Kwang-Rai * · Ahn, Bong-Won * · Suh, Joo-Hwan * · Kim, Shin-Won **

* Professor,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 Hee University

** Graduat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on the creation of parks in North Korea,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al stages in North Korea, park construction plans a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eriods: 1) from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2) from the end of the Korean War to the 1950's, 3) 1960's, and 4) 1970's and 1980's. Major North Korean parks are also presented and common characteristics of park-making in North Korea are analyzed in the following way: 1) the character and function of the parks, 2) the development of landscaping, 3) the creation of unique North Korean park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rchival research of North Korean documents and it may be limited due to the intrinsic problem of reliability that the documents have, and also to an impossible on-the-spot survey. However this study is of value because it presents North Korean parks, as yet unpublished in South Korea, and it can be used as valuable information for further study and especially for the planning of parks and green space system in preparation for a probable unified Korea.

For a profound study, broader and more accurately detailed North Korean documents must be obtained and opened to the public.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s of spatial composition and design elements of the parks in South and North Korea must also be conducted so as to find a model for the Korean park for a future unified Korea.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해방 이후 분단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 속에서 성장해 온 남한과 북한은 중국의 개혁과 개방, 독일의 통일, 구소련의 붕괴, 동유럽 국가들의 와해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1994년 10월에 있었던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간의 제네바핵협상의 타결로 북미간의 관계개선 및 남북대화 재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회담합의문에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어 김일성 사망으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문제가 논의되고 핵통제공동위원회와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수로 건설 문제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김일성 조문불허 등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급진전하는 한반도 주변정세변화에 대한 정부의 기민한 대응과 함께 북한체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에 대한 연구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통일된 국토를 예비하는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연구가 발표된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 분야의 논문은 주로 사회주의 도시계획이념, 북한의 국토개발과 통일된 국토를 대비하는 개발구상, 북한의 도시계획분야에 관한 연구로서 김원(1994)¹⁾, 주종원 외(1992)²⁾, 김원 외(1989)³⁾, 주종원 외(1993)⁴⁾,

김창석(1993)⁵⁾, 김현수(1994)⁶⁾의 논문이 있다.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가운데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분야가 바로 공원 및 유원지의 형성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도시계획에서 기본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의 기본방침으로서 대규모 국제도시화를 지향한 공원녹지를 증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문화도시의 육성을 위한 자연보호 강조 및 무공해도시 건설 그리고 인민생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육성,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김일성의 혁명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혁명도시의 육성을 위한 사적지와 유적지 개발⁷⁾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공원과 유원지의 건설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1977년 4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⁸⁾ 제5장 토지건설 제53조에 의하면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에서는 1980년대에 국제도시화 및 공원속의 도시조성을 목표로 하여 도시개발에 있어서 대규모의 조경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고 공원과 유원지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볼 때 이 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해방후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에 관한 연구로서, 해방 이후 분단에 의해 단절되어 그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던 북한에서의 공원

1) 김원(1994), "사회주의의 도시계획 이념연구", 「국토계획」, 통권 72호 : 7-24.

2) 주종원, 김현수, 유영욱(1992), "북한의 국토 및 도시계획 연구", 「국토계획」, 통권 65호 : 79-100.

3) 김원, 김의원, 여홍구, 김창석, 강위훈(1989),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구상", 「국토계획」, 통권54호 : 13-53.

4) 주종원, 김현수(1993), "북한의 주거지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통권69호 : 17-31.

5) 김창석(1993), "남북한 도시정주체계의 비교연구", 「국토계획」, 통권68호 : 5-24.

6) 김현수(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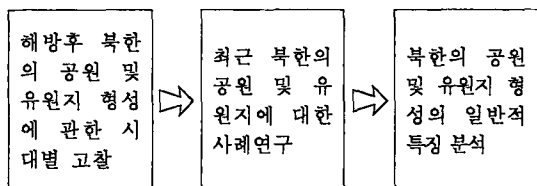
7) 국토통일원(1985), 「북한의 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실태」 : 17.

8) 조선로동당출판사(1986), 「김일성 저작집 32(1977.1-1977.12)」, 평양 : 224-238.

및 유원지의 형성에 관하여 소개하고, 장차 이 분야에 관한 활발한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역사의 전개로 인한 한반도의 통일가능성에 대비하는 공원녹지 개발 계획 및 체계형성을 위한 자료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북한자료의 획득은 통일원 북한자료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대부분의 내용이 수집된 북한자료에 의존한다. 필자는 (그림1)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북한의 공원과 유원지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우리의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그나마 부족한 북한자료를 가지고 수행하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본질적으로 대의선전 및 홍보적인 성격이 강한 북한자료가 지닌 신빙성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공원과 유원지의 공간구성원리 및 조성방법 그리고 원림형성을 위한 식재수종에 관한 실질적인 용어사용의 차이점이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자료에 나타난 구체적인 공간의 형태를 확인해볼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관한 북한 및 외국자료의 입수와 공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한 사이의 학술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종국적으로



(그림1) 연구 과정

로 현지답사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II.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에 관한 시대별 고찰

북한의 현대건축은 북한의 혁명 및 건설의 발전단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평양에서 간행된 「조선건축사 2」(1989)에 의하면 북한 현대건축의 발전역사는 <표1>에서 보는 것처럼 6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현대건축의 시점을 1926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역사학계가 1926년을 현대역사의 기점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원래 건축사적 시대구분이란 건축사적 측면에서 볼 때 기술사적 혹은 양식사적으로 특기할 만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지 역사학적 종속관계에 의해 설정된 현대건축의 시점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⁹⁾

<표1> 북한 현대건축역사 시대구분

북한 현대건축역사 시대구분	
1	1920년대 후반기로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
2	해방후 민주건설시기 ¹⁰⁾ (1945. 8~1950. 6)
3	한국전쟁시기 ¹¹⁾ (1950. 6~1953. 7)
4	전후 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1953. 7~1960)
5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1961~1970)
6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시기(1971~1980년대)

(출처: 「조선건축사 2」: 3을 참조하여 작성)

본 장에서는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발달해 온 북한의 도시건설분야 가운데 공원 및 유원지의 형성과정을 <표1>에 나타난 시대구분을 고려하여 크게 1)해방후부터 한국전쟁 발발전까지의 시기, 2)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시기, 3)1960년대 시기, 4)1970년대와 80년대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공원 및 유원지의 형성과정, 대표적인 공원과 유원지, 그리고 시대별 특징

9) 이왕기(1993), "조선건축사"에 대하여, 「조선건축사Ⅱ」, 서울:발언:12.

10) 원저에는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건설시기"로 명시되어 있다.

11) 원저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로 명시되어 있다.

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해방후 — 한국전쟁(1945. 8~1950. 6)

해방후 북한에서는 일제의 신궁 및 신사들을 철거시키고 그자리를 공원지대로 조성하는 한편, 도시의 중심부에 새로운 광장들을 건설하고 광장 주변에는 공원을 꾸며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였다.¹²⁾ 도시를 녹화하며 여러가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해방후 식수조립사업의 형태로 북한 전역에서 이루어졌으며¹³⁾ 문화휴식공원들이 조성되었고 대도시에는 아동공원, 동물원, 식물원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건설된 도시공원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공원과 대규모의 면적을 지닌 대공원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소공원으로는 평양 남문리 3가 지점과 역전 농민은행 본점 앞에 건설된 공원(1947년) 및 강계 역전에 조성된 공원(1950년)을 들 수 있으며, 완공되었거나 건설중에 있던 대공원으로는 평양의 모란봉공원과 해방공원 및 대동강유보도, 원산의 해방공원(11만㎡), 신의주의 해방공원(6만㎡), 홍남의 해방공원, 강계의 아동공원을 들 수 있다.¹⁴⁾

해방후부터 한국전쟁 발발까지의 시기에 건설된 북한의 공원들은 몇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먼저, 문화휴식공원은 집체적인 문화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단순한 휴식처로서의 공원이 아닌 교양장소로서 조성되었으며 대공원에는 운동장, 정치적 행사와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야외극장, 그리고 군중무용이나 집체적인 오락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졌다. 둘째, 공원에는 정치적 목적의 기념건축물이 건립되었고 공원내 중심적 위치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다. 셋째, 공원이용자들에게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한 공원화된 동물원과 식물원이 조성되었던 것이다.¹⁵⁾

2.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이 시기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공원을 복구하고 새로운 공원과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내각결정 제125호 '평양시 복구 재건에 관하여'와 내각결정 제48호 '도시원림화사업을 개선강화할 것에 대하여'¹⁶⁾에 의해서 북한 도시들의 중심부에 문화휴식공원을 만들고 강이 없는 도시에는 운하를 건설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하며 명승고적지와 자연풍치지대를 이용하여 시내 곳곳에 소공원을 꾸미는 한편 대공원에는 새로운 아동공원을 건설하였다.¹⁷⁾ 특히 내각결정 제48호(1959년 6월 25일)에 의하여 작성된 도시원림총계획과 순차건설계획은 북한에서 최초의 원림건설전망계획이었다.¹⁸⁾ 전후 1950년대에 건설된 공원과 유원지로는 평양의 모란봉청년공원을 비롯하여 함흥 동홍산공원, 청진 청년공원, 강계 인풍공원, 개성 자남산공원, 사리원 경암공원 등 66개의 대규모 문화휴식공원과 53개의 아동공원이 있다.¹⁹⁾

전후 1950년대에 건설된 공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공원이 도시녹지체계의 기본적인 공간이 되도록 대규모로 균일하게 배치되면서 이용에 편리하게 건설되었다. 둘째, 공원이 건설되는 부지의 자연지형상태를 이용한 공원조성으로 자연미를 지닌 공원이 조성되었다. 셋째, 전후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공원건설이므로 적은 양의 자재와 자금으로 건설할 수 있는 지형개조, 식수, 도로건설 등을 기본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넷째,

12) 리화선(1989), 「조선건축사 2」,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31-32.

13) 북한에서는 공원도시건설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7호로 '식수주간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1947년 3월 11일), 식수조립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평양 문수봉, 모란봉, 민수대, 대타령 일대의 야산에 많은 나무가 심어졌으며 이것이 북한에서의 대규모 도시녹화사업의 시점이 되었다. (앞의 책 : 38.)

14)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 II」, 서울:발언:276-279.

15) 리화선(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39-41.

16) 원래는 '도시원림화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로 되어 있다.

17) 고철(1991), "우리 나라의 공원발전에 대한 고찰", 「조선건축」, 제14호:55.

18)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 I」, 서울:발언:406.

19) 고철(1991), "우리 나라의 공원발전에 대한 고찰", 「조선건축」, 제14호:55.

공원에서의 식재는 주로 대칭적인 식재기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버드나무, 포플라나무, 단풍나무들이 열식으로 식재되었다.²⁰⁾ 다섯째, 문화휴식 및 교양장소로서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큰 공원과 유원지에는 대중정치사업구²¹⁾, 문화오락구, 체육구, 아동구, 휴식구 등의 사업구들이 계획되었다.²²⁾

3. 1960년대

1960년대에는 이미 건설된 공원과 유원지를 더 잘 꾸미면서 새롭게 크고 작은 공원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이루어졌다. 평양 모란봉공원과 보통강유원지, 대성산유원지와 같이 이미 조성된 공원과 유원지에 수십만 본의 나무를 심고 여러가지 건축물과 시설물을 새롭게 건설했으며 이미 골격이 형성된 원산 송도원, 개성 자남산공원을 비롯한 여러 공원과 유원지에서도 살을 붙이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평양과 지방도시에서 새롭게 공원과 유원지가 건설되어 동평양 대동강유보도, 원산 해안공원, 장자강유보도, 남포의 와우도, 마전의 해수욕장 등 새로운 공원과 유원지가 조성되었다. 대규모의 공원조성과 더불어 소공원을 꾸미는 사업도 진행되어 이 시기에 이미 형성된 구획과 소구역,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역적 특성에 맞게 아담한 소공원이 조성되었다.²³⁾

1960년대 공원조성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동방식 공원과 조선식 공원이 건설되고 그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원산 동방식 공원(사진 1)은 물고기와 연꽃이 있는 연못, 정자, 다리, 동산으로 이루어진 동방식 공원의 형태를, 안주 칠성공원(사진2)은 연못, 가산, 꾸불꾸불한 길, 다리로서 이

루어진 조선식 공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산천미를 재현하는 연못, 동산, 길, 폭포의 조성,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그늘을 제공하는 꽃과 나무의 자연적 식재, 그네터, 널뛰기터, 씨름터와 같은 민족오락시설과 민족건축양식의 건축물 배치로 이루어진 동방식 공원과 조선식 공원은 1970년대에 더욱 일반화되어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된다.²⁴⁾

1960년대 공원 및 유원지의 조성은 몇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먼저, 산수풍경식 원림조성수법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공원조성시 연못을 파고 가산을 쌓으며 물을 끌어들이며 폭포와 계곡을 만들고 돌로 계단과 오솔길을 자연스럽게 조성하여 풍치미를 나타내었다.²⁵⁾ 둘째, 공원과 유원지가 단지 문화휴식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산 지식을 얻는 학교로서²⁶⁾, 또한 공원과 유원지내 역사유적을 통한 교양장소로서 조성되었다. 즉 공원과 유원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야생식물과 과일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원림수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건설하여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는 한편, 역사유적들을 발굴복구하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정신을 길러주는 교양장소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셋째, 사철 풍치조성을 위해 각 계절의 경관을 고려하여 원림식물이 식재되었고 같은 종류의 꽃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풍경 시점을 많이 조성하는 몽치식 나무심기방법²⁷⁾으로 원림이 조성되었다. 사철 꽃이 피게 꾸미는 것은 공원 및 유원지의 조성에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되었으며 꽃나무를 몽치식으로 심는 방법은 원림조성상 중요한 수법의 하나가 되었다.²⁸⁾ 넷째, 공원조성과 관리

20) 앞의 책:55.

21) "대중정치사업구는 흔히 공원, 유원지의 입구부근에 배치되고 거기에는 큰 마당 또는 야외극장을 배치하여 대중적인 활동에 편리하게 하였다".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Ⅱ」, 서울:발언:407.)

22) 앞의 책:407.

23)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Ⅲ」, 서울:발언:90-92.

24) 앞의 책:94-96.

25) 고철(1991), "우리 나라의 공원발전에 대한 고찰", 「조선건축」, 제14호:56.

26) 「김일성 저작집」 16권, 338쪽에 의하면 "공원과 유원지는 근로자들의 좋은 휴식터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자연에 대한 산 지식을 주며 그들에게 자기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훌륭한 학교로도 됩니다." 라고 되어있어 공원과 유원지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Ⅲ」, 서울:발언: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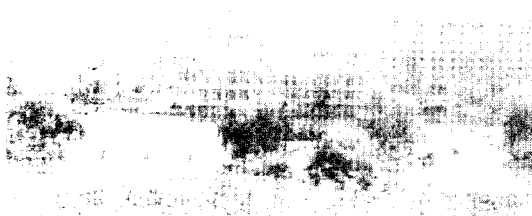
27) 본 논문의 (그림7)에 몽치식 나무심기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28) 앞의 책:93-94, 96-99.

에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이루어져, 공원 내부를 잘 꾸미고 관리운영에서 채산을 맞추며 각종 시설을 갖추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원림 식물을 많이 심어 수익성을 높였던 것이다.²⁹⁾



(사진1) 원산 동방식 공원(출처: 「조선건축사 Ⅲ」:95)



(사진2) 안주 칠성공원(출처: 「조선건축사 Ⅲ」:95)

4. 1970—1980년대

이 시기의 공원과 유원지들은 대규모로 건설되면서 동방식 공원이나 조선식 공원으로 조성되고 동력설비를 갖춘 다양한 현대적 유희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현대적 미감과 정서에 맞게 아름다운 산천경계를 산수풍경식으로 재현하는 동방식 공

원과 조선식 공원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전면적으로 건설되어, 모란봉공원, 안주 칠성공원(1975년 완성), 만경대유원지, 원산 송천별유원지, 개천청년공원(1984년 준공)을 비롯한 대규모의 공원과 유원지에서 특색있는 공간들이 조성되었다. 또한 공원 및 유원지에 현대적인 유희시설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분수공원, 유희공원, 물놀이장이 건설되었는데, 대성산에 북한 최초로 현대적인 대규모의 유희시설을 갖춘 대성산유희장(부지면적:8만㎡)이 1977년에 건설되고 뒤이어 만경대에 북한 최대규모의 만경대유희장이 1980년대 초에 건설되는 한편 1985년에는 만경대 송산기슭에 만경대물놀이장(부지면적:5만6천㎡)이 건설되었다.³⁰⁾ 이러한 공원 및 유원지의 건설로 1980년대에는 1960년대에 비해 공원면적이 7.6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³¹⁾

1970년대 및 80년대 공원과 유원지 조성에서의 특징으로는 첫째,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한 유희시설을 도입, 새로운 형태의 휴희장을 건설하였고 둘째, 자연에 대한 산 지식을 얻게 하고 사람들을 교양하는 장소로 공원을 조성하였는데³²⁾, 특히 도시중심부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주변 및 공원과 유원지의 원림 공간에서 북한의 최대명절인 4월15일에 꽃이 만발하게 하여 근로자와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동방식 공원 및 조선식 공원 건설의 일반화와 함께 관상적 가치가 높고 꽃이 아름다운 다양한 나무들이 공원의 지형특성에 맞게 조형예술적으로 식재되었다. 넷째, 공원 및 유원지 조성에서 조선식 각(칠성각, 와우도각)을 세우고 주요지점에 다양한 형태의 조선식 누정을 배치했으며 여러가지 장식 및 시설물과 함께 조각품, 다양한 모양의 분수, 색등, 음악 등이 널리 도입되고 조선식 공원의 조성소재로서 각 지방의 특징적인 돌이 많이 이용되었다.^{33),34)}

29) 고철(1991), "우리 나라의 공원발전에 대한 고찰", 「조선건축」, 제14호:56.

30)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Ⅲ」, 서울:발언:272-282.

31) 고철(1991), "우리 나라의 공원발전에 대한 고찰", 「조선건축」, 제14호:56.

32) 앞의 책:56.

33) 앞의 책:56.

34)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Ⅲ」, 서울:발언:273, 275.

Ⅲ.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실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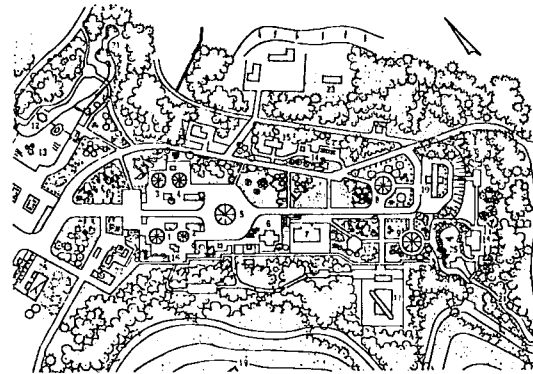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의 면모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수집된 북한자료 가운데 이들 공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최근(1980년대 및 90년대)의 공원과 유원지(5개소)를 중심으로 개원시기, 위치, 면적, 성격, 공간구성, 도입시설, 원림형성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개선청년공원

1984년에 개원한 개선청년공원은 평양의 중심거리인 개선거리에 면하여 모란봉 기슭에 건설된 문화휴식공원이다. 총부지면적이 40만여㎡에 달하는 이 공원은 동서방향이 남북방향보다 길게 놓여있으며(그림2), 공원 가까이에는 개선문과 김일성경기장 그리고 조중친선기념비인 우의탑이 있다.

개선청년공원은 전망 및 휴식구, 봉사구, 유희 및 오락구, 산보 및 조용한 휴식구, 동방식공원구, 경영구로 나누어 계획되었다. 개선청년공원의 입구는 개선거리쪽에 주입구를, 흥부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주변에 보조입구를 계획하였는데 전망 및 휴식구와 봉사구를 주입구 주변에 조성하여 전망 및 휴식구에 폭포, 개울, 분수를 배치하고 봉사구에 야외 및 실내 식당과 봉사시설을 배치하였다. 유희 및 오락구는 개선청년공원 중심부내의 넓은 공간에 마련되어 이곳에 회전비행기, 회전의자, 전기자동차 등의 현대적 유희시설들이 지형과 산세에 맞게 배치되었다. 산비탈지에는 산보 및 조용한 휴식구를 만들어 산책로를 조성하고 풍치좋은 장소에 휴식장을 마련하였다. 동방식공원구는 개선청년공원의 뒤쪽 제일 깊은 곳에 계획되어 이곳에 연못과 개울을 이용한 아름다운 풍치가 조성되고 연못가에 조선식 정각인 은사각이 배치되었다. 대웅전 건물 뒤쪽에는 경영구를 만들어 여기에 관리소를 비롯한 기타 필요시설을 설치하였다.

개선청년공원의 원림조성은 모란봉의 풍치와 통일성을 갖도록 하며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과 단풍이 만발하고 푸른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항상 아름다운 산수풍치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³⁵⁾



개선청년공원 총계획도	7-전기자동차	12-청수정	17-음료점	22-석담
1-회전마차	4-회전비행기	8-회전의자	13-분수	18-은사각
2-전동회전반	5-문어회전대	9-2중회전반	14-휴식장	19-개선대
3-회전오토바이	6-관선층	10-대관람차	15-대웅전	20-덕대
		11-관성단차	16-대표소	21-폭포
				23-관리소
				24-개울
				25-연못
				26-위생실

(그림2) 개선청년공원 총계획도(출처:「조선건축」, 제16호:65)

2. 남신의주 유상공원

신의주시의 남신의주에 도시의 풍치를 더하는 현대적인 문화휴식장소로서 남신의주 유상공원이 계획되었다. 신의주 — 평양 철도간선의 입구이며 도시의 사상교양 중심부인 14호구획에 계획된 이 공원의 부지면적은 약 150만㎡에 달한다. 공원지구는 살림집구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기본 간선도로를 끼고 있어 공원이용이 편리하고 도시 중심부 인공운하의 첫입구와 인접하여 있어 공원형성에 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운하와 대규모 공원녹지가 잘 조화되어 도시의 중요한 풍치구를 이룬다.

남신의주 유상공원의 주입구는 남신의주의 사상교양 중심부인 광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기본

35) 립지순(1991), "개선청년공원", 「조선건축」, 제16호:60-67.

간선가로에 인접한 곳에 배치되었으며 주입구에는 광장을 조성하여 주차 및 사람들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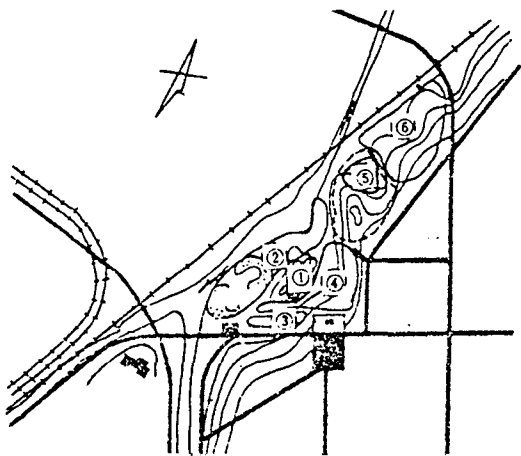
남신의주 유상공원은 지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6개구로 구분하고 구역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먼저 유상공원 부지안에 있는 사적구역을 중심으로 정치문화오라구를 계획하였고, 산풍치와 물풍치를 기본으로 하는 산수풍치구를 계획하여 인공운하와 그 주변의 아산능선 그리고 골짜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산수풍치구에는 큰 못과 수영장, 물놀이장, 낚시터, 보트장, 스케이트장을 마련하여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돌구며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유상공원입구광장 오른쪽에는 아동구를 계획하여 여러 가지 현대적인 아동유희시설을 배치하고 민속놀이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문화정서 생활과 휴식 그리고 몸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곳에는 특히 전투적인 혁명무용인 단심줄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도 계획하였다. 유희오라구는 유상공원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구역으로 이곳에 10여종의 현대적인 유희시설을 자연지형에 어울리게 배치하였고, 일반풍치구는 풍치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한편 공원중심부 근처에 배치하여 공원경영관리가 편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풍치구 위쪽에 배치된 민속놀이구는 민속유희를 할 수 있는 유희장으로서 이곳에는 산보와 조용한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 및 학습장들도 계획하였다.³⁶⁾

3. 4월15일소년백화원

4월15일소년백화원은 학생소년들에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고 자기 조국과 고향을 사랑하는 사회주의 애국주의정신을 길러줄 목적의 과외활동장소로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주변에 계획되었다(그림4).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중심으로 그 앞에 춤추는 분수공원 주변과 만경대의 갈림길에 세운 헌시비의 뒷산 그리고 소년궁전 뒷산을 포함, 10만㎡의 부지를 차지하는 이 백화원은 말 그대로 100가지 이상의 꽃나무와 화초로 봄 풍경을 위주로 한 아름답고 화려한 풍치를 형성하여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의 생일을 보다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4월15일소년백화원은 크게 화원구, 자연풍치림구, 고산지대수림구, 정원구로 구분하여 형성되었는데, 화원구는 소년궁전 앞 춤추는 분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2만㎡의 영역을 차지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백화원의 기본적 기능인 과외교육이 이루어지며 자연풍치림구는 만경대의 갈림길에 세운 헌시비의 뒷산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으로 등산을 위주로 하는 구역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뒷산의 고산지대수림구는 휴식을 위주로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소년궁전소조원들과 학생소년들이 휴식과 야외소조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정원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주변에 꾸며진 공간으로 건물 주변에 잔디밭을 넓게 조성하고 여기에 키가 큰 정원수를 여러곳에 심고 그 아래에 꽃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풍경을 조성, 학생소년궁전의 위용을 복돋우며 주변녹지들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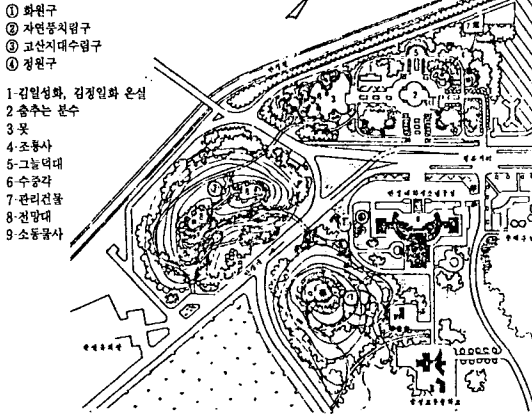
남신의주 유상공원총계획도
1-정치문화오라구 3-아동구 5-일반풍치구
2-산수풍치구 4-유희오라구 6-민속놀이구

(그림3) 남신의주 유상공원 총계획도
(출처:「조선건축」, 제11호:43)

36) 강성삼(1990), "남신의주 유상공원", 「조선건축」, 제11호:43-44.

성을 이루도록 계획하였다.³⁷⁾

4월 15일소년백화원 총계획도



(그림4) 4월 15일소년백화원 총계획도 (출처:「조선건축」, 제13호:71)

4. 능라도유원지

평양의 능라도유원지는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시설과 문화휴식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체육문화휴식공원이다.

능라도유원지는 크게 사적구, 백화원구, 민속놀이장구, 체육오락구, 반월도구, 경영구로 나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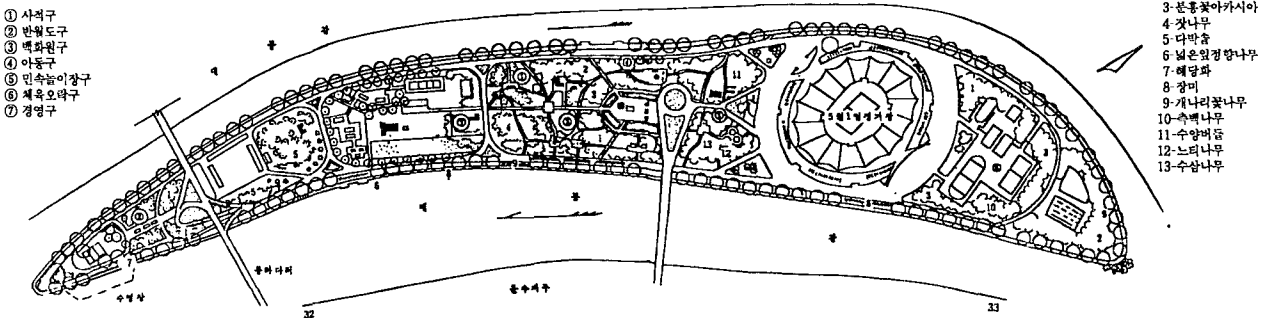
는데 (그림5), 먼저 사적구에는 김일성이 몸소 나무를 심었다는 사적터가 꾸며져 있고 백화원구에는 사람들이 꽃과 나무를 관찰하며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원림이 조성되고 청량음료점, 정각, 담화대, 의자들이 배치되었다. 민속놀이장구에는 그네터, 널뛰기터, 씨름터, 장기터, 끄너터 등을 배치하고 체육오락구에는 5월1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경기용 배구장, 야구장, 활쏘기장, 골프장, 농구장, 정구장, 송구장, 배드민턴장, 퐁크스케이트장 등을 조성하였다. 반월도구에는 수영장과 샤워 및 탈의실, 청량음료점, 관리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영구에는 유원지관리소 사무실과 작업반실 그리고 온실들이 있다.

능라도유원지의 원림형성은 아름다운 대동강의 풍치를 한층 돋구어주고 모란봉과 문수지구녹지군을 이어주는 풍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함에 주안점을 두고, 이미 있던 나무들은 보존하고 넓은 공지는 잔디밭으로 조성하며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도록 여러가지 꽃나무와 화초를 심어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38),39)}

5. 문수물놀이장

능라도의 5월1일경기장이 마주 보이는 동평양 대동강안의 문수거리를 마무리하는 넓은 공

능라도유원지 원림계획도



(그림5) 능라도유원지 원림계획도 (출처:「조선건축」, 제23호:32-33)

37) 김정혜 (1990), "4월15일소년백화원의 형성에 대하여", 「조선건축」, 제13호:7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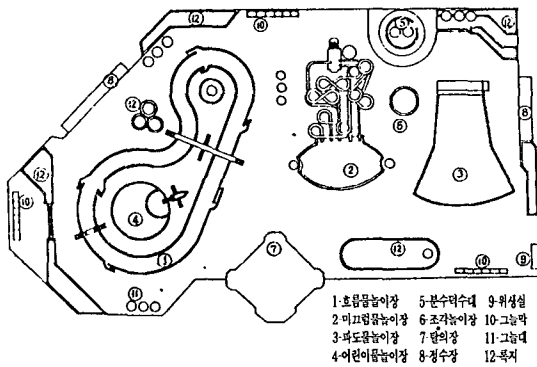
38) 김연순, 지정숙 (1993), "평양의 절경 — 능라도유원지의 원림형성", 「조선건축」, 제23호:32-33.

39) 김연순 (1992), "릉라도 민속놀이장구역형성", 「조선건축」, 제21호:69.

지에 문수유희장(구획면적:25만㎡)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에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문수물놀이장(구획면적:2만8천㎡)이 계획되었다.

문수유희장구획안의 오락휴식공간과 휴식공간의 녹지를 지나 이 구획의 마지막 부분인 문수거리4호구획에 배치된 문수물놀이장은 흐름물놀이장, 미끄럼물놀이장, 파도물놀이장, 어린이물놀이장 등의 다양한 물놀이장과 시설물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의 건축물로 구성된다(그림6).

문수물놀이장 총계획도



(그림6) 문수물놀이장 계획도
(출처:「조선건축」, 제25호:54)

문수물놀이장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첫째, 비교적 작은 부지안에 여러가지 기능을 만족시키는 물놀이시설이 집약적으로 배치된 것이고 둘째, 물놀이장 상호간의 동선길이가 짧고 이용이 편리하게 되어있으며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여러가지 물놀이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입체적인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장들 사이에 분수덕대를 설치하여 성격, 취미, 연령에 따라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늘대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물놀이장 주변에 잎이 넓은 나무를 심어 시원한 휴식공간을 계획한 것이다.⁴⁰⁾

IV.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의 일반적 특징

본 장에서는 Ⅲ장까지의 연구결과와 관련문헌을 토대로 하여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공원 및 유원지의 성격과 사명, 산수누정형식의 원림형성, 조선식 공원의 개발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공원 및 유원지의 성격과 사명

북한에서는 공원 및 유원지의 성격과 사명에 대해 공원과 유원지가 근로자와 청소년들의 문화휴식장소이자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또한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학교이며 과학지식의 보급지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공원과 유원지는 첫째, 인민들의 민족적 감정과 생활풍습에 맞는 휴식터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조성하며 둘째, 근로자와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전적지와 사적지,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자랑하는 고적지,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담고 있는 명승지에 건설한다. 셋째, 공원과 유원지에는 여러가지 기념비와 기념성이 표현된 건축물, 교양적 의의가 있는 구조물과 건축물을 세운다. 이것은 이곳을 찾아오는 근로자와 청소년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준다는 주체사상화 작업을 위한 사상교육적 교양장소를 만들기 위함이다. 넷째, 공원과 유원지에 원림을 조성하는 한편 도시와 온 나라가 김일성의 품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도시중심부에 세운 김일성 동상의 주변에 꽃밭과 잔디밭을 만들어, 북한의 최대명절인 4월15일에 꽃이 만발하게 하여 근로자와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시킨다. 다섯째, 공원과 유원지의 원림형성시 아름답고 쓸모있는 동식물을 도입하여 자연에 대한 산 지식 및 자기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을 길러준다. 이것은 근로자와 청소년들이 공원과 유원지를 통하여

40) 원인태(1993), "문수물놀이장 총계획과 그 능력결정", 「조선건축」, 제25호:54-55.

자연과 동식물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1), 42), 43), 44)

북한에서 이러한 공원 및 유원지의 성격과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동공원이다. 북한의 아동공원은 어린이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기능을 지니며, 지덕체교양을 위한 거점의 하나로서 유희장소 및 과외활동장소가 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아동들의 유희활동이 아동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며 높은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과외교양수단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아동들이 행하는 “의사놀이”, “미국놈 때리기”, “꽃바구니만들기” 등 많은 유희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북한에서는 아동공원에서 아동들의 유희활동과 지덕체교양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림계획을 세우고 있다. 첫째, 유희시설의 선택 및 배치에 있어서 정치사상성을 보장하여 교육교양적 가치를 높인다. 이를 위하여 아동공원에는 충실성을 키워주기 위한 교양시설과 선전물을 세워야 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적한 수목과 화초들을 심어야 하며 그외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에 필요한 시설을 계획한다. 둘째, 당의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는 원칙에서 키크기를 적극 도모하고 골격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체력을 전면적으로 단련시키도록 한다. 셋째, 국방체육유희와 산과 강에 익숙하도록 하는 유희활동을 장려하며 민족유희시설을 배치한다. 45), 46)

2. 산수누정형식의 원림형성

북한에서는 공원 및 유원지의 원림형성이란 선조들이 이룩한 원림풍치형식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되고 높은 수준에 이르며⁴⁷⁾, 선조들이 이룬 원림예술형식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민족의 심리적 특성, 미감, 구미가 반영된 민족적 형식의 원림풍치형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⁴⁸⁾

이에 따라 먼저 선조들이 창조한 원림형성수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원림유산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삼국시대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원림예술형식이 산수누정식이라고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기법으로서 산수차경, 산수재현, 산차수재의 3가지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산수누정의 원림예술형식이란 뛰어난 아름다운 산수풍경지에 휴식과 전망에 필요한 누, 정, 당, 대를 세워 아름다운 산수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표2〉 산수누정식 원림풍치형성기법

산수누정식 원림풍치형성기법		
1 산수차경기법	산(진산) + 수(진수) + 누정 = 원림풍치 자연미(진산) + 자연미(진수) + 예술미(누정) = 원림미	예) 관동팔경 (명해 월송정 제외) 관서팔경 (동림폭포 제외)
2 산수재현기법	산(가산) + 수(가수) + 누정 = 원림풍치 개조된 자연미(가산) + 개조된 자연미 (가수) + 예술미(누정) = 원림미	예) 경주 안압지와 임해전
3 산차수재기법	산(진산) + 수(가수) + 누정 = 원림풍치 자연미(진산) + 개조된 자연미(가수) + 예술미(누정) = 원림미	예) 경북궁 경희루와 향원정

(출처: 「조선건축」, 제26호:62-64를 참조하여 작성)

41) 고철(1990), “조선식공원의 몇가지 특성”, 「조선건축」, 제10호:83-84.

42) 고철(1991), “우리 나라의 공원발전에 대한 고찰”, 「조선건축」, 제14호:55-56.

43) 장건화(1993), “원림풍치구에 놓이는 건축물의 몇가지 구성방법에 대하여”, 「조선건축」, 제22호:74.

44) 김선기, 황중현(1994),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원림풍치형성기법”, 「조선건축」, 제26호:64.

45) 리진우(1990), “아동공원의 리용특성(1)—활동적인 유희장으로서의 아동공원—”, 「조선건축」, 제12호:72.

46) 리진우(1990), “아동공원의 리용특성(2)—과외활동장소로서의 아동공원—”, 「조선건축」, 제13호:80-82.

47)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교시한 바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민족문화는 결코 빈터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전래의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건설되는 것입니다.” (김선기, 김홍천(1993), “선조들이 건축물 주변 원림형성에서 리용한 꽃과 나무”, 「조선건축」, 제24호:93.)

48)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민족건축유산을 옳게 계승하는 것은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은 완전히 빈터 위에서 시작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시기의 민족건축유산의 옳바른 계승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된다.” (김선기, 황중현(1994),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원림풍치형성기법”, 「조선건축」, 제26호:62.)

하고 그렇지 못한 장소에는 산이나 물을 재현하여 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을 의미한다.〈표2〉는 이러한 산수누정식의 원림풍치형성을 위해 사용된 3가지 기법을 보여준다. 북한에서는 산수누정식의 원림풍치형식은 선조들이 순수시각적인 산수미보다 인공적인 산수풍경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산수누정의 원림풍치형식을 모란봉공원 및 대성산유원지를 비롯한 많은 공원과 유원지 형성에 적용하고 있다.^{4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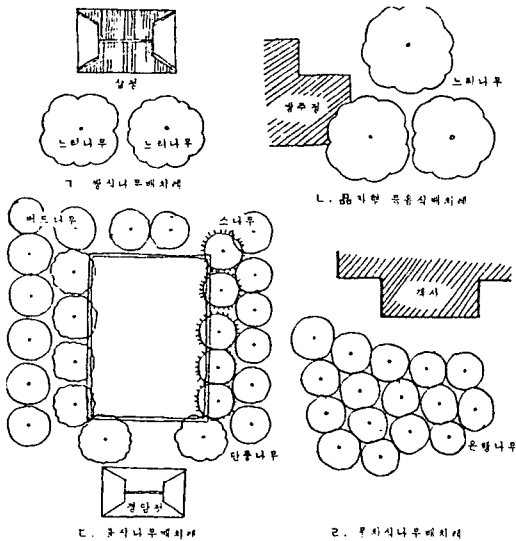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또한 선조들이 원림형성에서 어떤 꽃과 나무를 이용하여 왔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누, 정, 당, 대의 주변원림, 객사, 관아, 사당, 절간의 정원, 궁전정원, 그리고 살림집정원의 꽃과 나무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선조들이 원림형성에 적용

한 정원수배치형식을 역사자료를 통해 고찰하여 외대심기, 두대심기(쌍식나무배치), 세대심기(品자형 묶음식배치), 줄심기(줄식나무배치), 묶음심기, 뭉치심기(뭉치식나무배치) 등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림7)은 선조들이 원림형성에 적용한 나무배치형식을 보여준다.⁵¹⁾

3. 조선식 공원의 개발

북한에서는 공원 및 유원지의 건설에 있어서 오랜 세월이 걸친 산수누정식 풍치미의 풍치미감과 인민들의 사상감정 및 문화정서생활에 맞는 조선식 공원을 올바르게 구현하고⁵²⁾, 건축창조에서 민족적 정서가 풍기고 현대적 미감에 맞는 건축물을 창조해나간다는 주체적인 건축사상이 강조되고 있다.⁵³⁾

북한에서는 조선식으로 원림을 조성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아름다운 강산에 나타난 산수풍경을 잘 알아야 하고 선조들이 어떤 산과 물풍치를 아름답게 보고 즐겼는지도 알아야 하는 한편 원림형성시 누정을 비롯한 갖가지 건축물을 어떻게 자연과 어울리게 배치하여 자연미와 인공미를 조화시켰는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서 자연미를 위주로 하면서 인공미를 결합하여 산천미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원림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적인 미감을 지닌다는 이러한 조선식 공원들을 여기저기에 현대적으로 조성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그들에게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을 교양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54),55),56),57)}



(그림7) 선조들이 원림풍치형성에 적용한 정원수배치형식(출처:「조선건축」, 제24호:95)

49) 앞의 책:62-64.

50) 송춘택(1990), "대성산유원지의 물풍치형성에 대하여", 「조선건축」, 제12호:66-68.

51) 김선기, 김홍천(1993), "선조들이 건축물주변 원림형성에서 이용한 꽃과 나무", 「조선건축」, 제24호:93-96.

52)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공원과 유원지는 조선식으로 꾸며야 합니다. 조선식 공원과 유원지에는 우리 나라 강산의 아름다운 풍치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문화정서생활감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김선기, 김익중(1993), "원림형성에서 자연물풍경의 합리적 리용과 재현", 「조선건축」, 제22호:93.)

53)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교시한 바 있다. "건축예술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민족적 특성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잘 살리는 것입니다." (장건화(1993), "원림풍치구에 놓이는 건축물의 몇가지 구성방법에 대하여", 「조선건축」, 제22호:70.)

54) 김선기, 리필성(1992), "조선의 팔경명승과 산수화를 통하여 찾아본 우리 인민의 풍치미감", 「조선건축」, 제19호:81-85.

55) 김선기(1992), "원림공간에서 누정의 위치", 「조선건축」, 제21호:94-96.

56) 장건화(1993), "원림풍치구에 놓이는 건축물의 몇가지 구성방법에 대하여", 「조선건축」, 제22호:70-74.

57) 김선기, 김익중(1993), "원림형성에서 자연물풍경의 합리적 리용과 재현", 「조선건축」, 제22호:93-96.

북한에서는 공원 및 유원지의 건설에 있어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 구현된 조선식 공원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⁵⁸⁾

-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주변의 수려한 풍치를 공원형성에 끌어들이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공원의 한 구성부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아름다운 산수풍경을 조형예술적으로 재현하고 지형조건과 자연풍치에 어울리는 여러가지 건축물을 배치하며 원림수목과 화초들을 조화롭게 식재한다.
- 집체휴식을 즐기는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광장을 비롯한 집체휴식장소를 여러곳에 조성하고 공원입구나 광장주변 및 건축물주변을 규칙적 형성수법으로 처리하며 조용한 휴식구를 비롯하여 공원전반을 자연식 수법으로 해결한다.
- 공원조성에 있어서 중심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중심에 종속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 가산을 흙으로 쌓고 거기에 돌을 배합하여 이것을 못, 폭포, 계류, 샘터 등과 밀접하게 결합시켜 지형의 입면 및 평면상에 변화를 준다.
- 흐르는 물과 결합된 계곡풍치를 여러군데에 조성하고 인민들의 낭만적이며 약동하는 생활감정에 맞게 분수를 여러곳에 배치한다.
- 민족적 색채가 짙은 건축물과 민족유희시설 그리고 현대적인 유희시설과 오락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한다. 이는 공원형성에서 민족성과 현대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 원림조성에 있어서 북한의 특산식물을 위주로 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높은 아름다운 원림수목을 선택하여 심는다.
- 원림조성에서 몽치심기를 식수의 기본형식으로 하는데 몽치심기는 일반적으로 한가지 수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무의 자연생장미를 그대로 보존한다. 즐심기를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다듬어 정돈된

미를 조성한다.

V. 요약 및 결론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이루어진 공원 및 유원지의 형성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도시들을 국가종합도시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의 종합적인 도시건설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건설사업은 그들의 혁명과 건설의 시대별 발전단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과정을 크게 1)해방후부터 한국전쟁 발발전까지의 시기, 2)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시기, 3)1960년대 시기, 4)1970년대와 80년대 시기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고찰하고 최근의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종합분석한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공원 및 유원지의 성격과 사명, 산수누정형식의 원림형성, 조선식 공원의 개발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표 3, 4, 5>는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북한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로 수행된 본 연구는 북한자료가 본질적으로 지닌 신빙성의 문제라든지 불가능한 현지답사로 인한 확인작업의 미실시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동안 발표되지 않은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건설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통일에 대비한 공원녹지 개발계획 및 체계수립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의 보다 활발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과 관련한 보다 광범위하고 세부적이며 전문적인 자료가 입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간구성원리 및 세부적인 디자인 그리고 남북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석되어 통일에 대비한 한국적인 공원 및 유원지 모형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58) 고철(1990), "조선식공원의 몇가지 특성", 「조선건축」, 제10호:83-84.

<표3>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에 관한 시대별 고찰

시대구분 항목	해방후—한국전쟁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1960년대	1970—1980년대
시대별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의 신궁 및 신사 자리를 공원지대로 조성 도시중심부에 광장건설, 광장주변에 공원 조성 도시녹화 및 공원 조성사업을 식수조립사업의 형태로 북한전역에서 실시 대도시에 아동공원, 동물원, 식물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으로 파괴된 공원복구, 새로운 공원과 유원지 조성 도시중심부에 문화휴식공원 조성 시내 곳곳에 소공원 건설 대공원에 새로운 아동공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건설된 공원과 유원지에 대한 조성사업 새로운 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방식 공원과 조선식 공원의 전면적 건설 현대적 유희시설의 도입으로 새로운 유형의 분수공원, 유희공원, 물놀이장 건설 1980년대에는 1960년대에 비해 공원면적이 7.6배로 증가
대표적 공원 및 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원 평양 남포리 3각 지점과 역전 농민은행 본점 앞 공원 강계 역전 공원 대공원 평양 모란봉공원, 해방공원, 대동강유보도 원산 해방공원 신의주 해방공원 홍남 해방공원 강계 아동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양 모란봉청년공원 함흥 동흥산공원 청진 청년공원 강계 인풍공원 개성 자남산공원 사리원 경암공원 등 대규모 문화휴식공원(66개소), 아동공원(5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양 모란봉공원, 보통강 유원지, 대성산유원지, 원산 송도원, 개성 자남산공원 등 이미 건설된 공원과 유원지에 대한 조성사업 동평양 대동강유보도 원산 해안공원, 장자강유보도 남포 와우도 마전 해수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란봉공원 안주 칠성공원 만경대유원지 원산 송천별유원지 개선청년공원 대성산유희장 만경대유희장 만경대물놀이장
시대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휴식공원에 집체적인 문화휴식을 위한 시설을 도입하고 교양장소로서 조성 대공원에 운동장, 정치적 행사와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야외극장, 군중무용이나 집체적인 오락을 위한 시설 도입 정치적 목적의 기념건축물, 김일성 동상 건립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한 동물원 및 식물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을 도시녹지체계의 기본공간으로 조성 부지의 자연지형상태를 이용한 공원 조성 전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경제적 공원 건설 대칭적 식재기법에 의한 공원 식재 문화휴식 및 교양장소로서의 목적에 부응한 사업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수풍경식 원림조성수법에 의한 동방식 공원 및 조선식 공원의 일반화 문화휴식장소,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는 학교, 교양장소로서의 공원 및 유원지 조성 4계절 경관을 고려한 원림 식물 식재 몽치식 나무심기방법에 의한 원림 조성 수익성을 고려한 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한 유희시설이 도입된 유희장 건설 자연에 대한 산 지식을 얻게 하고 사람들을 교양하는 장소로서의 공원 조성 동방식 공원 및 조선식 공원 건설의 일반화 공원의 지형특성에 맞게 조형예술적으로 다양한 수목 식재 공원 및 유원지에 조선식 각 및 누정 배치, 조각품, 분수, 색 등, 음악 도입 조선식 공원의 조성소재로서 각 지방의 특징적인 돌 사용

<표4>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의 일반적 특징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의 일반적 특징	
공원 및 유원지의 성격과 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휴식장소 정치사상교육적 교양장소 과학지식의 보급기지
산수누정형식의 원림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수누정식 원림예술형식 강조 산수누정식 원림풍치형성기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수차경기법 산수채현기법 산수수제기법
조선식 공원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인 조선식 공원 강조

〈표5〉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실례

항목	명칭	개선청년공원	남신의주 유상공원	4월15일소년백화원	능라도유원지	문수물놀이장
개원시기		1984년	1990년	1990년대	1990년대	—
위치		평양	남신의주	평양	평양	평양
면적		40만여㎡	약150만㎡	10만㎡	—	2만8천㎡
성격		문화휴식공원	문화휴식공원	학생과의활동공원	체육문화휴식공원	물놀이장
공간구성		• 전망 및 휴식구 • 봉사구 • 유희 및 오락구 • 산보 및 조용한 휴식구 • 동방식공원구 • 경영구	• 정치문화오락구 • 산수풍치구 • 아동구 • 유희오락구 • 일반풍치구 • 민속놀이구	• 화원구 • 자연풍치림구 • 고산지대수림구 • 정원구	• 사적구 • 백화원구 • 민속놀이장구 • 체육오락구 • 반월도구 • 경영구	• 흐름물놀이장 • 미끄럼물놀이장 • 파도물놀이장 • 어린이물놀이장
도입시설		폭포, 연못, 개울, 분수, 야의 및 실내식당, 봉사 시설, 현대적 유희시설, 조선식 정각, 산책로, 휴식장, 관리시설	못, 수영장, 물놀이장, 낚시터, 보트장, 스케이트장, 현대적 아동유희시설, 민속놀이시설, 휴식 및 학습장	과의교육, 등산, 휴식, 야외소조훈련시설	사적터, 체육오락시설, 문화휴식시설, 민속놀이시설, 청량음료점, 정각, 담화대, 관리시설, 은실	물놀이시설, 분수터대, 그늘대, 그늘막, 기타 건축물
원림형성		계절별 경관을 고려한 산수풍치조성	인공운하와 공원녹지를 조화시킨 풍치구조성	범풍경을 위주로 한 풍치조성	계절별 경관을 고려한 자연풍치조성	그늘 제공을 위한 원림조성

인용문헌

- 강성삼(1990), "남신의주 류상공원", 「조선건축」, 제11호 : 43-44.
- 고철(1990), "조선식공원의 몇가지 특성", 「조선건축」, 제10호 : 83-84.
- 고철(1991), "우리 나라의 공원발전에 대한 고찰", 「조선건축」, 제14호 : 55-56.
- 국토통일원(1985), "북한의 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실태".
- 김선기(1992), "원림공간에서 투정의 위치", 「조선건축」, 제21호 : 94-96.
- 김선기, 김익중(1993), "원림형성에서 자연물풍경의 합리적 리용과 재현", 「조선건축」, 제22호 : 93-96.
- 김선기, 김홍천(1993), "선조들이 건축물주변 원림형성에서 리용한 꽃과 나무", 「조선건축」, 제24호 : 93-96.
- 김선기, 리필성(1992), "조선의 팔경명승과 산수화를 통하여 찾아본 우리 인민의 풍치미감", 「조선건축」, 제19호 : 81-85.
- 김선기, 황중현(1994),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원림풍치형성기법", 「조선건축」, 제26호 : 62-64.
- 김영순(1992), "릉라도 민속놀이장구역형성", 「조선건축」, 제21호 : 69.
- 김영순, 지정숙(1993), "평양의 절경—릉라도유원지의 원림형성", 「조선건축」, 제23호 : 32-33.
- 김원(1994), "사회주의의 도시계획 이념연구", 「국토계획」, 통권72호 : 7-24.
- 김원, 김의원, 여홍구, 김창석, 강위훈(1989),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구상", 「국토계획」, 통권54호 : 13-53.
- 김정혜(1990), "4월15일소년백화원의 형성에 대하여", 「조선건축」, 제13호 : 71-74.
- 김창석(1993), "남북한 도시경주체계의 비교연구", 「국토계획」, 통권68호 : 5-24.
- 김현수(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륙연구소(1990), 「북한법령집 제3권」, 서울 : 328-350.
- 리진우(1990), "아동공원의 리용특성 (1)—활동적인 유희장으로서의 아동공원—", 「조선건축」, 제12호 : 70-72.
- 리진우(1990), "아동공원의 리용특성 (2)—과의활동장소로서의 아동공원—", 「조선건축」, 제13호 : 80-82.
- 리화선(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 Ⅱ」, 서울 : 발언.
-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 Ⅲ」, 서울 : 발언.
- 림지순(1991), "개선청년공원", 「조선건축」, 제16호 : 60-67.
- 승춘택(1990), "대성산유원지의 물풍치형성에 대하여", 「조선건축」, 제12호 : 66-68.
- 원인태(1993), "문수물놀이장 총계획과 그 능력결정", 「조선건축」, 제25호 : 54-55.
- 장건화(1993), "원림풍치구에 놓이는 건축물의 몇가지 구성방법에 대하여", 「조선건축」, 제22호 : 70-74.
- 조선로동당출판사(1986), 「김일성 저작집 32(1977.1—1977.12)」, 평양 : 224-238.
- 주중원, 김현수(1993), "북한의 주거지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통권69호 : 17-31.
- 주중원, 김현수, 유영옥(1992), "북한의 국토 및 도시계획 연구", 「국토계획」, 통권65호 : 79-100.